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친구야, 큰 달 맞으러 가~자!

## 전국 대보름 행사 풍성...민속놀이 체험 통해 아이들 교육도

“아, 옷 진짜 크다. 우리 던져 보자!”  
2월 18일 민족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 서울 윤현궁에서는 ‘설맞이 민속놀이 마당’이 한창 진행됐다. 민영이(서울 계동초등2)도 친구들과 함께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제기차기·윷놀이·투호 등 윤현궁 마당에 펼쳐진 놀이판에서 어린이들은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어린이들뿐 아니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팬이치기에 열을 올렸다. 널뛰기를 즐기는 가족들도 있었다. 명절놀이가 즐거움이 아이에서 어른까지 모든 가족들에게 ‘똥’ 한 셈이다.  
설 연휴가 끝나버려 아이들에게 신나는 전통놀이 마당을 보여주지 못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곧바로 다가오는 우리의 큰 명절, ‘정월대보름’이 있기 때문이다. 음력 정월(1월) 15일, 올해는 3월 4일이 우리가 1년 중 가장 큰 달을 볼 수 있다는 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은 농경민족이었던 우리에게 특별한

의 돼지풀이경주, 소원기원 돌탑쌓기, 잔디찔매타기, 불강릉 돌리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강원도 원주시 매지농악보존회가 마련하는 윷잡치기, 탈토기 띄우기, 매지농악가락배우기, 팻볼놀이, 다리 밟기 등도 참여해 볼만하다.  
전남 전주에서는 전주시립국악단이 펼친 우리소리 한마당이 기대된다. 심청가, 풍물놀이 등 우리 가락 한마당이 풍성하게 준비돼 있어서다.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매년 달오름축제와 풍습놀이가 준비된다. 올해 역시 야외 문화광장에서 ‘달집태우기’ 등 관객과 하나 되는 축제의 현상이 열릴 예정이다. 리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글=김강진 객원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달맞이 행사 진행하는 곳

장소	행사
서울 국립극장 (02)2280-4115	달집태우기, 소원빌기 등
서울 국립국악원 (02)580-3333	아이 대보름 풍습놀이 등
부산 해운대 바닷가 (051)749-4076	춧불제, 온천제 등
대전 중구 (042)606-8282	굿판, 길놀이 등
강원도 원주시 (033)738-5436	소원지르기, 떡메치기 등
국립전주박물관 (062)521-9041	전통놀이마당, 소원쓰기, 윷놀이 등
전주한옥마을 (063)284-0570	안부 엮어쓰기 등
전북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63)254-2391	심청전, 판소리, 길놀이 등
전북 남원시 인원면 (063)625-6131	풍년기원 고사지내기, 기체조 등
충북 괴산문화원 (043)832-3588	달집태우기 통일기원제 등
제주서봉성리새마을 (064)728-2751	말사랑싸움놀이, 돌탑 쌓기 등

절기였다. 대보름의 민속놀이 자체도 농경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지신밟기’는 나쁜 땅의 기운을 밟고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라는 뜻으로 풍물패가 집집마다 축원을 했던 마을 단위의 행사고,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은 흑사나 눈에 있을지 모를 병충해를 막는다는 의도가 있다.  
가정에서는 호두·땅콩·밤 등 딱딱한 ‘부럼’ 깨물기, 보름달 보며 소원 빌기, 오곡밥 지어 먹기 등을 통해 질병을 이기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사진 지식을 챙겼다면 이제 대보름을 즐기는 일만 남았다. 특히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주목해볼자. 올 대보름, 우리 아이에게 대보름 풍속에 대해 알려 주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바다에서 달맞이를 하고 싶다면 해변도시를 찾아보자. 그중에서도 부산 해운대구에서 펼쳐지는 ‘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는 매년 달집태우기, 강강술래, 춧불제 등을 준비한다. 거대하게 솟아오른 해변의 불길에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것이다.  
제주도만의 특이한 지형인 ‘오름(기생화산)’에서 대보름을 즐길 수도 있다. 제주 ‘대보름돌볼축제’에서는 새별오름과 이달봉을 중심으로 한 오름 생태 체험은 물론, 말사랑 싸움놀이 및 마상마예공연, 행



국립극장의 줄다리기. 사진제공=국립극장



윤현궁에서 벌이는 모습.



국립극장 풍물놀이. 사진제공=국립극장



해운대온천달맞이축제. 사진제공=해운대달맞이온천축제운영위원회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 부산어촌민속관에서는

바다 어업을 주제로 낙동강까지 살펴볼 수 있다. 부산어촌민속관이 2월 23일 문을 열었다. 북구 화명동에 위치, 배 모양으로 조성된 민속관은 바다 어업을 주제로 하고 있는 다른 지역 전시관과 구별하기 위해 낙동강을 주제로 꾸며 지역 어린이들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3월24일까지 ‘생명과 문화의 발원 낙동강’을 주제로 개관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한다. (051)363-3333

#### 강화 전등사 불교대학에서는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한다. 입문자를 위한 기본 과정과 중급 고급, 경전반도 운영한다. 입학원서 교부 및 안내는 전등사 종무소에서. 3월 6일까지. (032)937-0125, 0025

#### 대구수서소방서에서는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성인 및 가족, 기관, 단체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소방서를 운영한다. 각종소방장비 사용체험·민의화제인양·소방안전학습 등의 화재안전교육, 기본 응급처치술을 체험하는 응급처치교육, 산악·교통사고 등에 대비하는 생활안전 교육이 각각 진행된다. 참가자 신청 (예약)은 전화로. (053)780-5246, 5247

#### 청소년경제체험센터에서는

초등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체험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배주 화~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1시와 4시 3차례 운영되며 6월 30일까지 매주 접수한다. 홈페이지 (www.yezone.org)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02)3143-1822

#### 한국일보사에서는

훌륭한 교육자를 선정, 수상하기 위한 한국교육자 대상 추천을 받고 있다. 교직 경력 15년 이상의 초·중등 교사·교감·교장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현직) 대상이며, 접수 마감은 3월 16일까지. 원서 및 자세한 문의 홈페이지(www.hankooki.com)와 전화. (02)724-2613-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조계종 포교원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상이 여전히 메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해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달단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겠습니다.

#### ■ 중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중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 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마당인 중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중립학교의 교장·교감 선생님과 교편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중립 종교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중립 종교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중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민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간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 ■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중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년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관공과(일용의식)	월, 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가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작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명/관욕 등	화, 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 & 무용(이론)	불교음악/ 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교수진 : 김구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 마일운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이기봉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 심만춘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 김효성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 김법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영산재 이수자) / 한해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 2. 용사자격 : 승려, 일반인

###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제출서류 (1) 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합격후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 증명사진 3매(반명함)

###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fnfus0821@naver.com

###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7. 입학 및 개강일 :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 9. 문의처

☎ 02-0000-115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오세균(보운) 심 인(지해)	조광현(혜산) 박성호(차명) 김혜숙(선혜)	김재운(선각) 변호근(준광) 신금자(주혜)	조명환(효광) 류지연(화산)
전수생(19명)	조보현(고담) 엄인용(인성) 김태곤(만결) 방한열(진원) 장원순(행범)	박현일(진현) 김동찬(동인) 김성욱(구수) 김창수(행준) 노명열(혜일)	이주상(성진) 서준석(혜성) 김근선(보덕화) 김민정(동환)	김광화(광호) 이자복(혜명) 이영근(법일) 김규운(적광)